

전통한국건축과 서구건축의 유기성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ganic Trait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Occidental Architecture

권영걸 / Kwon, Young-Gull

Abstract

The stepping stone of the study is provided through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cultural value with the paradigm shift at the turning point of late 20th century and examining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By researching the oriental and occidental culture in terms of the origin, formation, relation and differences which should be divided into broad branches, that is natural, ideological, formative and spatial aspects and so forth. This paper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and relativities between two divergent cultures by way of analyzing the architecture in plastic and cognitive aspects to residential space.

This study intends to elucidate common trait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at of the Occident and the discrepancies of their attitudes toward nature and space.

In Western civilization they used to consider architecture as a physical organization while the oriental people consider it a object what is so of itself. The former concentrated on the functional rationality of scientific technology with the uncontextual propensity which does not consider natural environment, the latter could reach the naturalness more harmonious to environment.

What counts in the upcoming age of coexistence of Globalism that emphasizes the world universality and Nationalism that sticks to local cultural characteristics is to establish the new value system and identity based upon natural order and organic quality. As a result, we could recognize the organic quality as a cosmic order could be a valid means to achieve the globalization of our culture through the compatibility between gap and common ground of both cultural sphere.

키워드 : 유기성, 전일성(全性), 친자연성

1. 서론

인간의 정신은 그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틀을 벗어나 존재하지 못하며, 건축은 그 건축이 속한 문화권의 사유형식과 세계관의 반영이다. 즉 건축은 매우 많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유형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후·풍토 등 자연적 요인, 재료와 기술, 제도 및 법규 등 한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건축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과 복제의 과정을 통해 한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는

도 한다.

특히, 세계 문화를 크게 양분하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근본적인 세계관과 사유형식 등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가지며, 이에 의해 나타나는 건축의 다양한 특성들 또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건축에 있어서 '有機性'은 우리가 우리의 傳統건축의 특성을 설명할 때나, 西歐건축의 한 경향을 설명할 때共に 나타나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공통된 주제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解釋되고, 反影되고, 實體化되었는가를 비교 사례연구를 통하여 규명함으로써 한국 주거건축의 특질과 서구 주거건축의 특질 간의 조화가능성의 단서를 찾고, 接点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 교수

2. 동·서양의 조형의식 비교

한국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건축을 비롯한 우리의 조형예술의 배경이 된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의 고유성에 앞서 그것을 동양의 한 유형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양문화는 서양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方法에 의해 실체에 접근한다. 서양문화가 理性중심인데 비해 동양문화는 感性문화에 가깝고, 지적 논리보다 감성적 직관에 의한 총체적 경험적 실체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양문화가 실증적 가치를 강조할 때 동양문화는 간결하게 본질을 꿰뚫는 것을 추구한다.

한국의 조형은 '사이(間)'의 개념을 중요시 한다. '사이'의 크기는 공간기능과 건축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변하며 유동적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에 관한 개념이지만 시간과 인간의 개념을 포괄한다. 서양의 과학이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불변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본질을 파악하려고 한 반면, 동양은 '사이' 즉 공간 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했다.

서양의 조형이 내적 구성 및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객체적 형태를 추구하였다면, 동양의 조형은 그 객체의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상황 및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美를 추구하였다. 동양의 공간은 虛한 房을 두고, 열린 마당을 두어 無 또는 여백의 미를 주고, 공간이용자의 개입과 참여에 의해 공간의 본질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虛는 實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서양의 빈(void) 공간과는 달리 氣가 있는 공간이다. 즉, 동양의 건축의 미는 건축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자연, 건축물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성 설정에 있으며 자연과 인간을 향해 개방된 시스템을 지향한다.

서양의 조형에서 독창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남과의 차별적이고 특이한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개체성과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자기만의 독자성을 나타내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건축물에서 기능과 의미상의 독창성이 함께하지 않은 채 변화를 위한 변화만을 추구한다면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자각과 소비까지는 있겠지만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동양의 건축물은 이와 달리 독창성의 집념보다 자연의 道와 氣를 연결하는 정신적 미학적 경험의 설정에 관심을 두었다. 동양에서의 독창성은 남과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에 근원적으로 접합됨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그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체제 내에서 존재하며, 건축은 그 건축이 속한 문화권의 사유형식과 세계관을 표현한다. 오랜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삶 자체가 자연 의존적이던 한국인의 대표적 특성은 친화적인 자연관에 있었다. 구축환경(built environment)과 그것이 자리한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이 동일시되며, 인공환경이 흡사 자연에서 솟아난 것 같이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인공환경이 자연의 한 구성인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공간 계획의 기본사상이었다. '인공환경의 자연환경화'는 일반적으로 이야

기되는 자연에의 조화나 순응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넘어, 인공이 자연에 완전하게 합일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만물이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자연이 인공에 의해 변하는 듯 하나, '온그대로(如來)'일 뿐이라는 사상이 건축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20C 후반에 들어와서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의 세계관과 환경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고왔다. 기계론적이고 요소환원주의적 사고로부터 유기론적이고 다원적인 정신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건축 및 환경디자인의 문제들에도 방법론적인 변화를 가져와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한 탐색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수 을 추구하는 非서구적인 새로운 환경이념의 토대가 되었다.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할 수 없는 全·論的 世界觀(holistic worldview)으로 전환된 바, 이는 동양사상과 이미 오래 전부터 면면히 내려오는 한국인의 자연관 및 조형의식과 합치되는 것이다.

3. 건축에 있어서의 有機性

3.1. '유기성'의 개념

프로이트(S. Freud)에 따르면 인간의 본능적인 긴장감소 추구 즉, 질서로서의 욕구는 유기체를 지배하는 원리인 뿐만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도 근본적인 경향성이다. 유기적 질서에의 열망은 일종의 삶을 유지하려는 본능이며, 혼돈으로부터의 회피, 망설임, 편사적인 대응일 뿐이다. 1930년 경 심리학자 윌터 B. 캐논(W. B. Cannon)은 자율신경체계의 조정 매커니즘들이 유기체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힘의 균형을 통해 질서상태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유기체의 이러한 자기보존 현상을 恒常性(Homeostasis)이라고 명명한 바, 이는 유기체의 내외부의 상호교환 작용을 통해 유지되는 정상상태를 통해 볼 수 있다.

유기적 질서와 질서있는 형태는 대립적인 힘들의 균형 즉 상보적 평형으로부터 나온다. 평형상태는 무질서의 반대개념으로 상하로 흔들리던 천칭이 어느 순간 정지하듯이 하나의 체계를 휴식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힘이다. 균형은 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균형이 가능한 한 체계의 구성분자들의 가장 단순한 조합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서는 좋은 건축환경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며 이러한 연유에서 인간이 유기적 질서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3.2. 유기적 건축의 개념과 특성

건축에서는 유기적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가?

'유기적(Organic)'이라는 용어는 유기체의 특성에서 연유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건축에서 借用되면서 아래와 같이 선별적으로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어떤 특정한 自然的인 법칙에 따르는.....

2) 어떤 기능을 가진 인간 또는(과) 동식물의 상이한 조직이 조합한 단위의 자연에 속한, 또는 그와 관련된.....,

3) 많은 조직, 요소등이 모여 일정한 목적하에 전체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이다

건축에 있어서의 유기성은 유기체의 형태, 사용되는 재료, 내재적인 구성원리, 관계성 등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는 건축에서의 형태, 구성원리, 관계성에서도 辨別的으로 적용되어진다. 즉 유기체의 형태가 건축의 형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공간구성원리와 관계성에도 관련될 수 있다. 유기적 형태 즉 나무줄기의 모양에서 건축의 구성원리를 발견하거나, 눈의 결정체에서 도시의 구성원리를, 자연의 내재적 질서에서 건축공간조직의 방법적 원리를 찾아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다양함은 또다른 다양한 유기적 건축의 가능성을 낳는다.

유기적 건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된다.

(1) 親자연성

자연친화적 가치는 자연과 기능적, 시지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서양의 경우나 자연지세에 순응하여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동양건축에서 공히 나타나는 특성이다. 특히 후자는 동아시아의 건축문화에서 풍수(Feng Shui)사상과 명당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순수한 자연재료와 자연형태의 활용도 다른 형태의 친자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2) 親인간성

동·서양의 건축은 그 접근방법이 상이하나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간존중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간적인 공간적도나 주거공간 내에서의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인간적도에서 추구하고 있다.

(3) 균형과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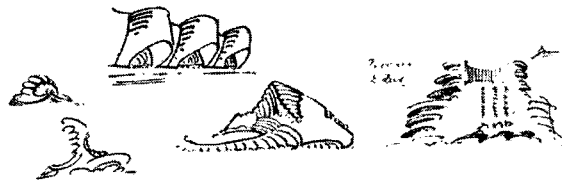
고대 그리이스의 델피신전의 기둥에 각인된 ‘치우치지 말라’는 지혜의 문귀는 서구 문명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상태를 규범적 가치로 발전시켜 온 단서가 되었다. 또한 ‘중용’은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치우침 없는 中道의 원리로서 특히 동아시아 문화의 기반이 되어 왔으며 공간계획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항상 궁극적으로 ‘유기성’이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건축에 있어서 유기성은 건축이라는 것이 단지 인위적이고 자유의지적인 생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완벽한 자연, 즉 자연의 全 性과 有機性을 모방, 복제, 차용하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4. 유기적 건축에의 접근유형

4.1. 형태적·형식적 차용

자연의 형태적 질서와 관련된 유기적 요소의 모방과 은유를 통하여 건축적 형태를 재현하는 경우이다. 건물의 외관이나 평면계획이 역동적이거나 자연적형태를 느끼게 할 때 이를 유기적 형태라고 한다. 이 형태는 건축의 모듈이나 규칙성으로부터 해방된 조형언어를 가지며 환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지각되는 효과를 갖는다. 형태의 특이성으로 나타나는 이 차용방법은 표현주의적 경향이 강하며, 이 유형을 넓게 정의할 때 아르누보 건축까지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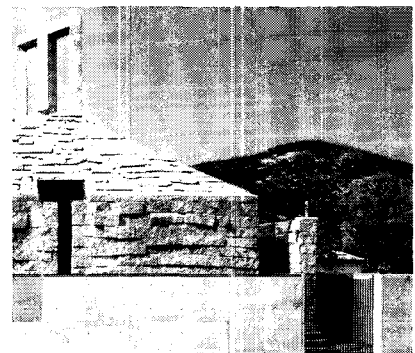


<그림 1> Imaginary Sketch for Garden Pavilion (Eric Mendelsohn, 1920-30)

건축형태와 더불어 건축재료의 선택에서도 주변의 자연과 조화되고 順應하는 풍토적인 재료, 즉, 석재, 목재, 흙 등을 사용함으로써 自然을 살리고 人工을 겸양하는 것이나, 주위의 地形地勢에 순응하는 것도 유기적 건축의도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 1> 대산 新里의 너와집



<사진 2> 철탕의 탑(서울, 방배동, 伊丹潤 1988) - 산을 닮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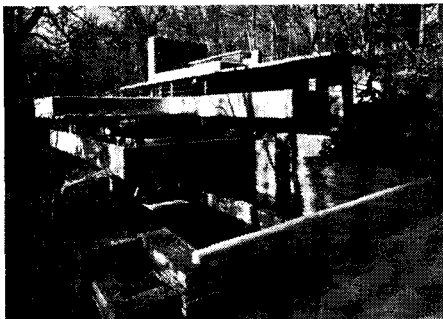
4.2. 법칙성·원리성의 적용

유기적 건축은 외관적 형태의 형식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자연의 내재적 질서의 법칙과 원리에 기초하여 조형되기도 한다. 이 자연적인 법칙이란 너무 包括的이고 광범위해서 거의 모든 존재의 형식 내용에 관여하게 된다. 국한적인 의미로는 인위적인 것의 반대의미로서 인간의 觀念的, 技術的 작위성이 배제된 순수한 생성 소멸 및 실존의 원리들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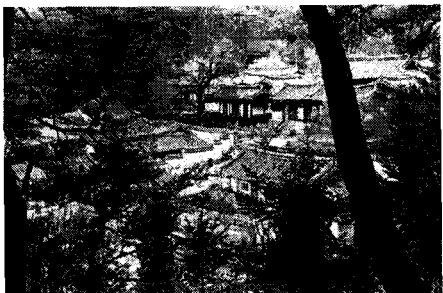
유기체의 특성인 성장변화의 動的인 原理를 건축에 응용하는 것이다. 건축물이 시간적 경과와 필요에 따라 成長發展할 수 있도록 건축공간의 변화가 가능한 融通性있는 주거(flexible housing)를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이 또한 유기적 건축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자연유기물의 형성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구성요소는 독자적인 기능과 형태를 가지면서도 전체와 떼어낼 수 없는 關聯性을 갖는다. 이 경우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合)을 뛰어넘는 有機的 全體를 이루며, 그 내부에서 총체적 상호관계를 이룬다. 건물 속의 건물, 공간 속의 공간, 더 나아가 도시 속의 도시 등 공간위계적 의도에서 보이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유기적 건축의 논리와 일치한다.

유기체의 外形은 내부적 필요와 기능에 의해 형성된 單位기관들의 조직에 의해 결정된다. 즉 외형은 내부의 필연적 결과이지, 외부의 형태에 의해서 내부가 從屬的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칙은 유기적 기능주의(Organic Functionalism)건축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즉 삶의 本質的 需要와 根本的 기능의 충족에 의해 건물의 평면구성이 비롯되고 모든 공간들은 주어진 목적에 맞추어



〈사진 3〉 Kaufmann House, (F.L. Wright, 1920)



〈사진 4〉 도산서원(경북, 안동군)

조성되어야 하며, 완성된 건축물의 형태는 有機體에서와 같이 기능의 충족에 따른 자연스런 結晶體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유기체처럼 건축에서도 형태는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5. 내외부 공간 間의 關係性 - 공간조직사례연구

건축이 유기체와 같이 자연에 順應 또는 密着할 때 이를 유기적이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적 건축은 유기적 건축의 한 유형이면서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건축에서 자연이라 함은 地形, 綠地, 물 등의 有形的인 요소와, 공기, 기후, 소리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無形的인 요소를 포함한다. 유형적 요소들은 건축에 조형적으로 관련되며, 무형적인 자연요소들은 그 성격상 공간적으로 관련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5.1. 유형적 자연에의 순응 - 조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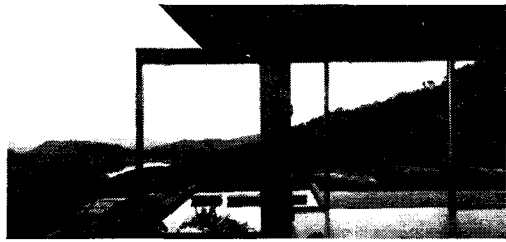
가시적인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우선 일차적으로 規模와 形態 또는 位置와 配置형식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롭게 一體感을 이룰 때 이 건축물은 자연과 유기적 조화를 이루었다고 본다. 건축물이 산 정상에 우뚝 솟아 자연을 지배하려는 듯한 형상을 가진 경우와는 달리, 산 중턱에서 적절한 규모와 형태, 배치로 자연의 모습을 해치지 않고 산의 일부분이 되는 듯한 조형은 유기적 건축의 한 전형이다. 이는 건축에 있어서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건축행위에 깔려 있는 철학적, 사상적 배경에 연유한다. 이 경우 그 形態 決定要因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꼭 曲線的인 외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환경이 평야나 바다, 그리고 수평적인 山勢를 가질 때 그 水平的인 요소를 強調하여 수평선과 조화시킬 수도 있다.



〈사진 5〉 河回마을(경북, 안동군)과 養眞堂



〈사진 6〉 Sorrells House (Richard Neutra, 1959)



〈사진 7〉 Singeton House (Richard Neutra, 1959)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은 자연요소를 直接건축에 밀착시켜서 건축물과 體化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도심지 밀집주거 지역의 계획에서 기계적인 환경속에 적극적으로 녹지를 건축에 밀착시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F.L.Wright의 Kaufmann House처럼 물을 건축에 밀착시키거나, K.Scarpa의 Venice에 있는 Galerie처럼 아예 건축물의 내부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는 松廣寺의 翎和閣과 沈溪樓의 경우와 같이 개천, 즉 자연요소를 작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밀착하여 건축물을 세움으로서 시·정각적으로 자연에 통합되려는



〈사진 8〉 松廣社(전남, 승주군)의 翎和閣 밑으로, 그리고 沈溪樓 옆으로 흐르는 맑은 여울



〈그림 2〉 Sketch for Amity Village (Richard Neutra,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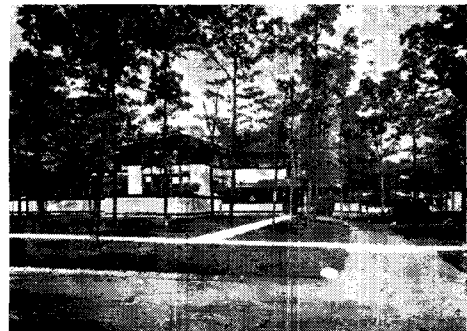


〈사진 9〉 Kaufmann House. "Falling Water" (F.L. Wright, 1920)

경향이 강하다.

5.2. 무형적 자연에의 밀착 - 공간지각적 측면

자연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지우는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즉 의기, 기후, 소리 등의 영향을 건축공간 계획시에 관련짓는 방법과, 지각은 되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 '공간'의 구성방법 등을 상징할 수 있다. 즉 공간적인 개방과 폐쇄, 전이 또는 시지각적 연속성(Visual Sequence)과 변환, 나아가 과정적 공간을 통한 외부환경의 적극적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準사적인 성격을 띤 媒介空間, 그리고 내부공간의 延長으로서의 자연적 요소들을 직접 체험하고 밀착시킬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가령 주거공간에 딸려 있는 발코니는 날씨 좋은 날 거실, 식당, 침실의 기능을 옥외 즉 自然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축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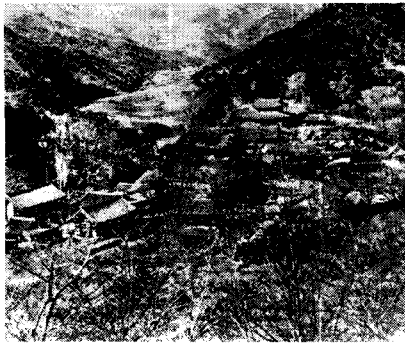


〈사진 10〉 Ward Willitts House (F.L. Wright, 1920)

1902년에 완성된 F.L.Wright의 Ward Willitts House(Highland Park/ Illinois)는 이러한 유기적 건축의 空間構成을 잘 나타내준다. 각 室들의 내부공간은 외부에 직접 접해 있지 않으나, 전방과 옆으로 열린 전이공간(Terrace)을 거쳐 공간은 相互貫入된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을 Wright는 '자연과의 交感을 통해 인간에게 自由와 創意를 제공하며, 개인으로서의 可能性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건축에서도 유기적 공간구성의 개념은 두드러진다. 한쪽 면이 완전히 開放된 방에 연결된 마루,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閉鎖되어 있으나 하늘로 열려있는 외부공간으로서의 안마당, 사랑마당, 그리고 밖에서 가장 깊숙한 안마당까지의 진입과정등은 人間과 自然과의 유기적 融合을 위한 건축적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건축은 자연과 잘 융합되어서 심지어 자연 그 자체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건축물의 형태는 나무나 人體의 모양과 흡사한 점이 많으며, 건물개체 뿐만 아니라 配置方法에 있어서도 자연의 섭리를 좇아 이루어졌으리라는 推測을 가능케 한다.

風水地理에 의한 사상적 요소는 한국건축문화의 根幹이다. 물, 산, 방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연형상의 유기론적 질서에 의하여 배치 계획에 자연성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와 내가 동시적인 신체로서, 자



〈사진 11〉 麻谷寺(충남, 공주군)



〈사진 12〉 河回마을의 忠孝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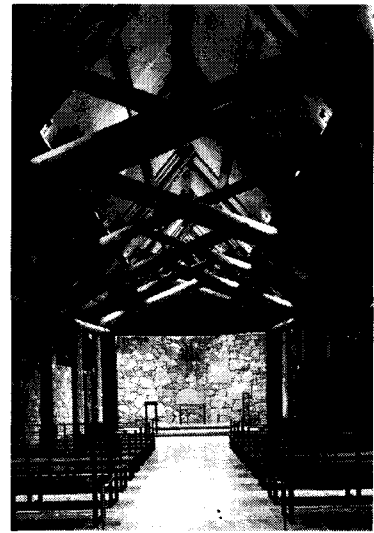
〈사진 13〉 釋王寺(함경남도) - 배치의 불구직적 질서

신의 의식을 한정하여 건축하였다. 이러한 한정으로 나타난 주거는 지형과 자연환경에 관한 宇宙的 원리를 따라 空間과 時間의 조합으로부터 가장 좋은 結果(장소)를 얻으려 한 것이다. 또한 집을 인간과 동등한 일체로 생각하는 家本主義사상으로 발전할 만큼 집에 대한 관념은 항상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개되었다.

6. 결론

「자연의 개념」은 20세기 들어 西洋사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東洋적 사고에 가장 근접한 예로 훗설(Edmund Husserl)의 개념정의를 들 수 있다. 훗설은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념적 선입관이나 가정과 전제를 배제하고 「사물 그 자체」(To the things themselves)에 대한 인간 경험의 구체성에 충실하려는 의지는, 객관화 된 모든 대상의 스스로 그러함」이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주관적 해석보다 우선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 현상위에 군림하지 않으며(Philosophy from below not from above), 현상자체의 자율성(that which shows itself from itself)을 존중하는 것은,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what is so of itself)의 개념에 상당히 근접한다.



〈사진 14〉 石彩의 교회(日, 북해도 伊丹瀨, 1991)

본 연구는 한국전통건축과 서양건축의 공간구성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비교고찰함으로써 그들이 나타나게 된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자연을 물적 구성체로 이해했던 서양의 경우, 건축도 역시 物的 구성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여 그들이 주장한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 사례에서 마저도 그러한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 그와 달리 동양에서는, 자연의 物性은 自然(스스로 그러함)이 物性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 전통건축들은 보다 온전하게 자연에 융합될 수 있었다.

서양의 건축문화와 한국의 그것 사이에는 자연과 공간에 대한 태도나 건축계획방법론 상의 차이가 발견되나, 자연에 보다 더 조화되고 통합되려는 시도는 공통적이었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주거건축을 풍수사상과 親自然性의 개념으로, 서양의 주거건축을 有機的機能主義로 설명하였다. 서양은 건축을 「인간의 삶을 담은 그릇」으로 규정했으나, 한국의 전통건축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릇이 되기 위해 그 그릇을 기능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상으로 삼았다. 서양건축의 「기능주의적 현실문제 해결방법」과, 21세기 패러다임인 유기론적 세계관과 동일軸 위에 있는 「한국건축의 자연성」이 함께할 때, 그리고 그들 양자간의 개별성과 보편성이 조화를 이룰 때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와 세계적 보편가치에 도달하려는 목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 보편주의(Globalism)와 한국이라는 지역의 특수문화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주

의(Nationalism)가 상호 拮抗하는 오늘날의 세계에 '우리것의 세계화'와 '세계양식의 우리화'라는 쌍방향의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김봉열, 한국의 건축-전통건축편, 공간사, 1994
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3.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제, 1996
4. 윤장섭, 한국건축사론, 기문당, 1994
5.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2
6.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6
7. 루돌프 아른하임, 정용도(역), 예술과 엔트로피, 눈빛시각예술총서, 1995
8. 伊丹潤, 건축과 환경, JUN ITAMI- 이다미준 건축작품집, 건축과 환경, 1992
9. Esther McCoy, RICHARD NEUTRA, George Braziller Inc., New York, 1960
10. Frank Lloyd Wright, AN ORGANIC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68
11. Frank Lloyd Wright, THE NATURAL HOUSE,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1970
12. Vincent Scully Jr, FRANK LLOYD WRIGHT, George Braziller Inc., New York, 1960
13. Volf V. Eckardt, ERIC MENDELSON, George Braziller Inc., New York, 1960
14. 권영길, 세계화의 논의와 문화적 정체성, 월간인테리어 통권 101호, 1995. 2.

〈접수 : 1998. 2. 17〉